



이재명대통령 만난 경제계 "주요 10개 기업, 5년간 270조 지방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경제계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올 신규채용 5만1천600명…삼성 1만2천명·SK 8천500명·한화 5천780명"

이재용 "실적 올라 채용 여력 생겨"…李대통령 "일자리 창출노력 감사"

재계 "AI시대, 고용효과 큰 서비스산업 육성해야"…정부에도 요청

5년간 52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경협은 예측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관련, 270조 원 가운데 66조 원은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 원 증가한 규모다.

10개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도 작년보다 2천500명 늘어난 5만1천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6%인 3만 4천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이 될 전망이다.

기업별 잠정 채용계획은 삼성 1만2천명, SK 8천500명, LG 3천명 이상, 포스코 3천300명, 한화 5천780명 등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스피의 활황 속에 이날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가총액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로그램도 확대하겠다. AI를 비롯한 취업·직무교육과 인턴십,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써 달라"며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사내 벤처 활용, 창업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조성 등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로봇 및 AI와 관련한 투자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은 적극 해결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재봉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파괴·추락의 8개월" 지방선거 목전 이재명 정부 때리기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30번 언급…'국민' 27번보다 많아

무주택 신혼부부 파격대출·기업 지방이전 시 범인세 제로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약 1만5천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해 '국민'(27회)보다 많이 다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 시간 36분보다 12분 더 길게 했다.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

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를 넘 달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띠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표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표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도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지금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수사 결과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방정책의 변화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적전통제권 획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작권 전환 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는 방안이 검토했으나 연설 직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

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똑바로 용시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까 신천지까지 해서 특검합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먼저 자녀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영가리식 저출산 대책'에서 착안,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시 냈던 아이디어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기업이 지방으

로 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과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다면 정부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선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 법 개정 ▲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감찰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권리형 2차 기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이 골자다.

이재봉 기자

성남시
독감 예방접종
성남 시민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접종 가능
*성남시 지원 의료기관
백일해 예방접종
성남시 '임산부·배우자 및 양가 부모' *지원대상 등록 필수
성남 시 접종
A형간염 예방접종
성남 시민 20 ~ 49세 *취약계층, A형간염 고위험군
접종비 2회 지원, 성남 시 접종
Dr. seongnam 예방케어
닥터 성남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성남 시민
백신비 무료, 접종비(19,610원) 본인부담
* 60세 이상 저소득층(보건소 무료 접종)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최대 44만원
소득·연령 상관없이 성남 시민 누구나 성남시 33만 원 + 국가 11만 원
*보건소에서 1차 선별·진단검사를 받아야 지원 가능(연증 상시)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중원구보건소 031-729-3930,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위 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